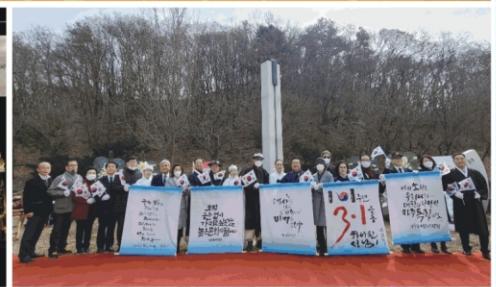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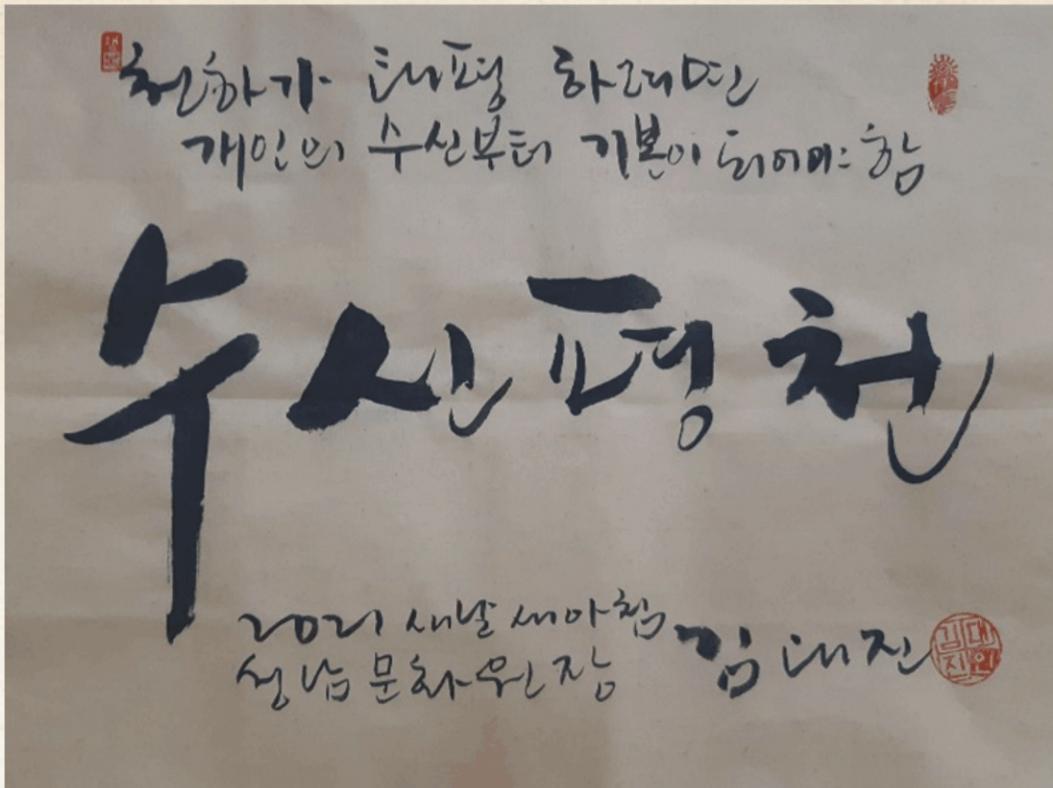
Seongnam Culture

성남문화

2020. 12 vol. 32



참여의 문화, 나눔문화의 산실
성남문화원



작가소개



서예가 유 명 헌

- 전국서예대전 초대작가 – 운영위원
- 글꽃 캘리그라피 대표
- 성남문화원 · 문화의집 강사

목차

1. 표지
2. 목차 및 작품
3. 2021 신년사
4. 문화원 사업
 - 2021 새해 천제봉행
 - 제23회 강정일당상
 - 제5회 둔촌문화제 및 제15회 둔촌중국백일장
 - 성남3·1만세운동 추념제
 - 제15회 남한산성권 순국선열 추모제
 - 제20회 송산백일장
 - 제29회 성남사랑글짓기
 - 성남학연구소 성과(성남문화연구 27호 발간 등)
 - 제25회 학술회의
 - ABN ‘문화도시 성남’
 - 2020 새해 천제봉행 및 전통문화 한마당
13. 공모사업
 - 내 삶을 디자인 하는 행복
 - 경기지역독립운동사 자료집 출간
 - 함께 쓰는 캘리 / 함께 고는 지승공예
 - 인문학으로 빛나는 경기 / 경기예술로-전통공예
 - 문화로 기억하는 신흥
 - 생활문화공연 - 네묶음
16. 성남향토민속놀이 공연
 - 성남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 성남 오리뜰농악
18. 문화원 이모저모(문화원 소식, 임직원 주요 활동사항 등)
28. 문화가족 활동
30. 문화원·문화의집 강좌 소개
32. 사진으로 보는 2020 문화원 행사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새해

희망찬
새날들이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새해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 시민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며, 하시는 일들이 순리대로 이루어져 날마다 웃음꽃 피우는 날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로운 여가활동과 경제활동까지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올 날이 올 것입니다.

옛날 경전인 <대학>에 개인의 수양에서 시작하여 가정과 나라와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기본이 되는 수신(修身)과 최종 목표인 천하태평을 압축하여 수신평천<修身平天>을 올해의 좌우명으로 삼고자 합니다.

새해 첫날, 성남문화원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비대면 행사로 천제(天祭)를 봉행(奉行)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하늘과 명산대천(名山大川)에 고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에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국태민안을 축원합니다.

2021년은 신축년 소띠의 해입니다. 소는 성실함과 우직한 뚝심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우리 모두가 인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을 개척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힘이 세나 사납지 않고 순종하는 소의 천성은 은근과 끈기, 여유로움을 지닌 우리 민족의 기질과 잘 융화되어 선조들은 특히 소의 성품을 아끼고 사랑해 왔습니다. 농경시대에 소는 사람들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근한 동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새해에 우리 모두 묵묵히 그러나 뚝심있게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민 모두에게 심신의 건강과 재물의 풍요와 마음의 여유로움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대 진
성남문화원장

2021년 1월 1일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2021 신축년(辛丑年) 새해 『천제봉행(天祭奉行)』 온라인 개최



성남문화원은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 판교마당바위에서 개최해 오던 '새해 천제봉행(天祭奉行)' 현장행사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하고, 12월 30일(수) 성남문화원 강당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021년 신축년(辛丑年) '천제봉행'을 촬영해서 1월 1일(금) 온라인 유튜브 성남문화원으로 방영했다.

이번 촬영한 '천제봉행'은, 새해를 맞아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는 기원하는 행사로, 김정진 성남문화원 사무국장의 개회 사회로 시작됐다. 이어 천제봉행(天祭奉行)은 윤종준 성남문화원(부설) 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 위원의 집례로, 좌집사 한동열 성남문화해설사회장, 우집사 김진수 광산김씨 대종희 이사와 번시관에는 이경식 단군성조 연합회장, 영신관 조남두 성남학연구소장, 진찬관 이형복 성남문화원 부원장(성남농협 조합장), 초현관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축관 권선출 성남문화원 특별회원, 아현관 정재영 성남문화원 부원장(낙생농협 조합장), 종현관 이수영 성남문화원 자문위원장(전 성남시의회 의장), 송신관 방영기 성남문화원 문화학교 교장(이무술집터나지는소리 보존회장)이 참여했다.

이번 영상에는 성남시 소개 영상, 6년째 개최됐던 '판교마당바위'에 대한 역사와 천제봉행의 의미와 연혁, 천제봉행(天祭奉行),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은수미 성남시장,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의 신년사와 시·시의회·문화원 2021년 사자성어 휘호 퍼포먼스에 성남문화원 '글꽃 캘리그라피팀', 신년 축시에 연극배우 이주희 성남연극협회장이 권우상 작 '내일을 위한 마음으로' 낭송, 춤자이무용단의 '성남의 빛', 성악어울림 벨칸토합창단의 '아름다운 나라', 타악연희단 소리울의 '경기가락 웃다리 사물놀이'로 신명나는 감동의 무대를 새해 선물을 선사해 주었다.

김대진 원장은 "코로나19 등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각자의 생활에 충실히하며 잘 극복하였기에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며, "신축년 새해엔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우리 모두 건강과 마음의 풍성함이 넉넉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문화원은 2005년부터 청계산, 남한산성, 분당구청 문화의 거리, 성남시청 등에서 새해 천제(天祭)를 개최해 오고 있다. 천제는 예로부터 국가적으로 나라의 평안과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의례로 계승되어 온 것으로, 성남문화원이 해마다 개최해 오고 있다.



‘제23회 강정일당상’ 홍연화 수상자 시상식 시상금 300만원, 성남시독거노인센터에 기증해...



성남문화원(원장 김대진)은 제23회 강정일당상 수상자로 성남시 공예명장 제1호로 선정된 지승공예가 홍연화(61) 회장을 선정했다.

강정일당상 수상자로 선정된 홍연화 성남시 공예 명장은 34년 전 한지를 가지고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지승공예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입문한 후, 2007년부터 한지공방을 마련해 지승공예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성남문화원을 비롯한 복지회관, 다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지공예 강의와 회원작품전, 체험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경기도공예품대전’에서 성남시가 대상, 은상과 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데 기여, 성남시를 공예의 메카로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다.

홍연화 수상자는 2016년 처음 공모 실시한 성남시 공예명장 제1호로 지정된 바 있다. 이전에 2005년 경기으뜸이, 2013년 한국예총 명인, 2006년 경기도여성상(예능부문)수상, 2018년 경기천년 장인, 2020년 한국문화원연합회 인재분야 창의 활동가 부문 수상자로 선정 되는 등 많은 각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홍연화 수상자는 공예 명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서 많은 봉사활동도 펼쳐 나갔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484회(총 1102 시간)의 봉사활동을 기록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돕기 바자회, 심장병 어린이돕기, 소년분류심사원 후원 행사 등에 작품을 기증하여 수익금을 기부했다. 수정구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 시설과 소외계층, 저소득층 아동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또한, 현재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을 맡아 여성발전기금사업, 양성 평등주간 행사 등 많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제23회 강정일당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10월 28일 성남문화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성남시의원, 정재영 성남문화원 선임부원장(낙농농협 조합장), 21회 수상자 원복덕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18회 수상자 이화연 기자, 이주희 성남연극협회 회장, 이경식 단군성조연합회 회장 등이 함께 축하해주었다.

강정일당상은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호로 지정(1986년) 된 후 한국 문화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조선 후기 여류문사 강정일당(1772-1832)의 고귀한 인품을 기리고자 제정한 바 있다.

한편, 홍연화 수상자는 부상으로 받은 상금 300만원 전액을 성남시독거노인센터에 기증했다.



『제5회 둔촌문화제』 무관객 개최 시(詩) · 무(舞) · 악(樂)의 향연

성남시의 큰 어른으로 추앙받고 있는 경기도기념물 제219호 둔촌 이집 선생의 효행과 충절, 선비정신을 기리는 '제5회 둔촌문화제'가 11월 14일(토) 오후1시 성남시청 1층 온누리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무관객 공연을 촬영해서, 11월 23일(월) 성남문화원 유튜브 채널로 송출했다.

성남문화원이 주최하고 광주이씨대종회가 후원하는 제5회 둔촌문화제는 식전공연으로 '금빛춤사랑'과 9988톡톡쇼 어르신 문화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타악연희단 소리울'이 출연했다.

이어 본 공연에서는, 둔촌 선생을 추모하는 성남시립합창단의 <큰 기침 소리>, <탄천의 눈물> 성악공연과 성남시립국악단의 <타악 퍼포먼스>, 둔촌 作 <정훈>을 시창(방영기), 무용(정미래), 대금연주, 이주희 연극배우(성남연극협회 회장)가 둔촌 추모시 <둔촌을 따르고 싶다네> 낭송, <둔촌백일장 입상작> 시낭송에는 하대원동 안광림, 김정희 시의원, 김준효 하대원 동장, 오복희 하대원동 주민자치위원장이 한 무대에서 낭송했다.

이어 성남에서 활동하는 성남취타대의 <대취타 – 둔촌 납시옵니다.>, 성남농악보존협회의 <판굿 – 둔촌의 향기>, 춤자이 예술단의 <부채춤>, 이향우 경기민요단의 <난봉가와 경복궁타령>, 명창 방영기 선생과 신세대 명창 방글 국악가족이 <풍년가와 군밤타령>, 정미래 무용가의 <승무>가 공연됐다.

둔촌 이집 선생은 광주이씨의 1대조다. 본관은 광주, 자는 성노, 호가 둔촌이다. 해박한 학문과 고상한 지질로 이름을 떨쳐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도은 이승인 등 당대의 명현들의 존경을 받았다.

성남문화원 김대진 원장은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시작한 2020년 새해가 밝은지 잊그제 같은데,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2021년 문턱에 와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도 둔촌 이집 선생의 생애에서 보여준 효와 우애, 지조 있는 삶의 자세를 모두가 본받고 실천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둔촌 이집 선생 묘역(성남시 하대원동)은 1993년 8월 2일 성남시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됐다가, 2008년 5월 26일 경기도기념물 제219호로 승격 지정됐다.



『제15회 둔촌 중국백일장』 코로나19로 중국 심양시 현지 진행



11월 13일(금), '제15회 둔촌 중국백일장'이 심양시 5개 분회장에서 동시에 막을 열었다. 소학조, 초중조, 고중조, 교원조 총 500여명이 참가했다.

올해로 열다섯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로 대규모 집회가 불가해 심양시 조선족소학교 참가자들을 지역별로 심양시조선족 제1중학교, 심양시조선족 제2중학교, 심양시조선족 제3중학교, 심양시 혼남구 조선족학교, 심양시조선족 제6중학교 등 5개 분회장으로 분산시켜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취했다. 해마다 한차례씩 성황리에 펼쳐지던 연례행사가 중단되는 아쉬움을 고려하여 심양시 교육연구원은 수차례 행사 방안을 검토하여 상기 방안으로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매년 시대에 부합되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전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글짓기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온 둔촌 중국백일장은 올해 <잃어버린 동년>, <빈자리>, <나와 2020년>, <갈림길에서> 등 네가지 제목을 선정했다. 참가들은 그중에서 한 개 제목을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원고지에 담아냈다.

각 분회장에서는 한국 성남문화원 김대진 원장과 광주이씨대종회 이옥재 도유사가 보내온 영상편지와 축하메세지로 개회식의 막을 열었다.

심사결과 소학조에서 심양시 소가툰구 조선족중심소학교 김주진 학생과 심양시 화평구 서탑 조선족소학교 김려나 학생, 초중조에서 심양시 혼남구 조선족학교 백옥설 학생과 심양시조선족 제3중학교 정혜령 학생이, 고중조에서 심양시조선족 제1중학교 윤헤진 학생과 김미혜 학생이, 교원조에서 심양시 우홍구 조선족 오가황중심소학교 리은향 교원이 수상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평에서 "작품들은 다소 세련되지 않았지만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현실의 진상을 밝히려고 애쓰는 모습이 긍정할 만한 시도였다"며 '잃어버린 동년'의 초조함과 선택의 '갈림길에서' 방향하는 말 못할 고충을 대담하게 펼쳤는가 하면 진실한 생활체험에 토대한 뜨거운 가족애와 인간애로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면서 '나와 2020년'에 겪었던 잊을 수 없는 일들을 돌아켜봄과 동시에 높이어서 멀리 내다보는 대담한 오기와 포부와 결심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동시에 글의 소재들이 비슷하여 독특하고 개성이 돋보이는 글이 적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좀더 열린 사유와 넓은 안목을 가지고 남다른 시각의 독특한 사유로 더 높은 차원에서 폭넓게 다루어보았으면 하는 바램도 제기했다.

올해 행사는 심양시교육연구원과 한국 성남문화원이 주최하고 심양시조선족교육협회가 주관했으며 한국 광주이씨대종회, 한국 성남시가 후원했다.



『제101주년 성남3·1 만세운동 추념제』

3월 1일(일) 오전 11시 성남3·1만세운동 기념탑에서 3·1절 101주년을 기념하여 추념제를 개최했다.

올해 추념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축소하여 진행됐으며, 김정진 사무국장(김도규 의병장 증손자)의 사회로, 김대진 원장과 임경수 광복회 성남시지회장, 남기형 남상목 의병장 손자, 한동억 한백봉 애국지사 후손, 조승래 성남국학원장, 우건식 성남시재향군인회장, 최만순 성남경기도민회장, 최순호 성남시여성지도자협의회장, 이형복 성남농협 조합장, 방영기 前경기도의원 등 소수 인원만 '현화와 참배'를 했다.

이날 참배는 이향우 경기민요단의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 독립유공자님들의 혼을 위로하는 '비나리' 공연과 성남문화원 글꽃 캘리그라피 유명현, 함미영 서예가 등 5인이, 3·1만세운동 정신을 고취하는 족자와 휘호 퍼포먼스를 펼쳤다.

성남문화원은 금년에도 3·1절 노래 작곡가인 故박태현 선생 야탑동 묘소와 독립운동가 한백봉, 한계희 선생 묘소 현화, 범시민 태극기 달기 참여 등 많은 시민이 함께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선양하고, 민족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홍보했다.



제81회 순국선열의 날 『제15회 남한산성문화권 순국선열 추모제』

남한산성문화권협의회(성남·광주·하남문화원)는 제81회 순국선열의 날(11.17)을 맞이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현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고자, 제15회, 남한산성권 순국선열 추모제를 경기동부보훈지청 후원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11.17(화) 오전 11시 성남문화원 3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남한산성권 순국선열 추모제는 조국 광복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 침탈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성남·광주·하남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며, 해마다 3개 문화원이 행사장소를 바꿔가며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성남문화원에서 진행했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성남·광주·하남시 문화원 관계자와 보훈단체장이 참석하였으며, 1부 식전 추모공연에는 김순옥 무용가의 '진흔무', 2부 추모식에는 국민의례, 경과보고, 개회사, 제문봉독, 추모사, 추모시 낭송, 현화 및 분향, 벨칸토 합창단의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으로 이어졌다.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3호 송산 조견 선생 추모 『제20회 송산 백일장』 온라인 개최



고려 말 조선 초기 송백 같은 의기충절을 역사 위에 남긴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3호 송산 조견(松山 趙, 1351~1425) 선생을 추모하는 제20회 '송산 백일장'은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금년에는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온라인 공모전으로 개최했다.

이번 백일장은 <송산 할아버지>, <남한산성>, <단풍잎>, <도토리>라는 주제로 초·중학생, 일반부(산문·운문) 약 200여명이 참가했다.

조견 선생의 고려가 망하자 이름을 견(絹)으로 고쳤으며, 자(字)는 종견(從犬). 호는 송산, 시호는 평간공(平簡公)이다. 조견 선생의 묘역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산3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말선초 사대부 묘제로 석물(묘표, 문인석, 석등 등)이 600년이 넘은 묘역으로 성남문화원 학술

토론회 및 문화재 지정 청원에 따라 2001년 2월 20일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3호로, 조견 선생의 아들 석실공 조철산 묘역은 성남문화원 청원으로 2016년 3월 17일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시상식은 10월 22일 성남문화원 3층 강당에서 총 49명을 시상했다.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호 강정일당 추모 『제29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 온라인 개최

자리나는 청소년들에게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기 정체성을 심어주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고하는 기회를 주고자, '제29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접수했다.

이번 글짓기 대회는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호 여류문사 강정일당을 추모하는 행사로,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성남문화원이 연례행사로 개최해 나가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글짓기 대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일상에서 강정일당의 고귀한 인품과 생애를 본받아 삶에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랬고 시상식 또한 최소인원으로 간소화 해 안전하고 내실있는 글짓기 대회가 되도록 노력했다.



시상식은 10월 28일 성남문화원에서 총 55명을 시상했다.



성남학연구소, 『성남문화연구 27호』 발간



城南文化研究

제27호 · 2020

ISBN 9792-7924-04
9 772692-7924-04

城南文化院
附設 城南學研究所

성남문화원(부설)성남학연구소의 핵심 사업인 『성남문화연구 27호』가 편찬됐다. 성남학연구소는 전통문화의 뿌리과 보존 전승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와도 잘 융합하여 새로운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올해 제27호는 김주홍 연구위원의 '성남 천립산 봉수의 자연 비품', 최명숙 연구위원의 '강정일당 문학의 주제 연구', 정태열 연구위원의 '명당입지가 주변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대한 연구위원의 '나전칠기장 칠장 보유자 배금용', 성기용 연구위원의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연구', 윤종준 연구위원의 '전주이씨 이순제 문중 소장 고문서 고찰' 등의 논문이 수록됐다.

‘전주이씨 덕양군파 이순제 묘역’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7호 지정』

성남시는 지난 4월 28일 분당구 동원동 소재 '전주이씨 덕양군파 이순제 묘역'을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7호로 지정 고시했다.

성남문화원 윤종준 박사는 "이순제 묘역은 묘표 비문의 서체가 예술적 가치가 높고, 비문의 내용에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국가관을 표현하고 있으며, 당시의 장묘문화인 유월장(踰月葬)과 복장제(複葬制) 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 민속학적 연구 가치가 높으며, 성남시 궁내동의 경기도기념물 제54호인 충숙공 이수(풍산군 이종린의 차남)선생 묘역과, 하산운동의 경기도문화재 자료 제136호인 풍산군 이종린(중종 왕자 덕양군의 장남)묘역과도 관련이 있으며,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교지와 호구장적(戶口帳籍)등의 고문서와 연계하여 연구가치가 높기에 성남시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거쳐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대진 원장은 "성남시의 세거문중 57개 성씨 중, 6품 이상 역사인물 830여 명 중에, 전주이씨는 102명으로 12.3%를 차지할 만큼 많은 역사인물을 배출했고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지정을 통해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부여될 것이며, 성남문화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 고장 정체성 찾기 사업'에 한편의 장을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25회 학술회의 ‘광주대단지 주민생활 공간과 도시형성’

성남문화원(원장 김대진)은 성남시의 탄생의 계기가 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11월 4일 오후2시에 성남문화원 3층 강당에서 제25회 학술회의를 <광주대단지 주민생활 공간과 도시형성>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영상촬영을 하였고, 성남문화원 유튜브채널을 통해 11월 11일에 송출하였다.

성남문화원은 오래전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해 왔고, 역사적 의미를 찾고자 노력해왔다. 그리하여 2004년 12월 15일에는 제9회 학술회의를 <광주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고, 자료집 발간 사업을 추진하여 40주년이던 2011년과 성남시 40년사를 편찬하던 2013년 2차에 걸쳐 보고서를 낸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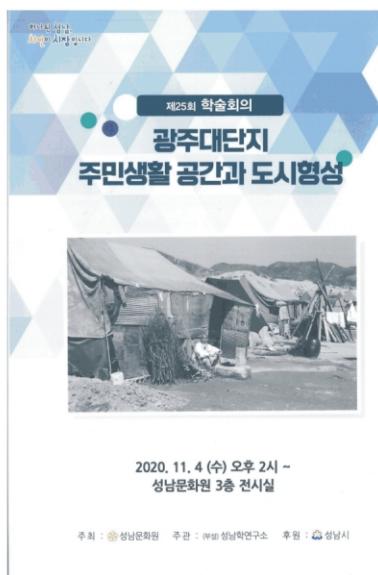
성남 지역은 1968년에 광주대단지 사업이 발표되고 곧이어 다음 해부터 주민들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주택과 일자리 대책도 없이 이주(移住)가 강행되었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 대해 기본생존권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가 1971년 8월 10일 발생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난동, 폭동 등의 매우 부정적인 용어로 사건의 성격을 흐리게 하였으나 최근 시민사회에서 사건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시에서도 5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성남문화원 학술회의는 1971년 8월 10일에 발생한 사건 그 자체보다는 주민들이 시위를 전개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주민 생활 공간과, 도시형성 과정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 것인지, 그리고 광주대단지 사업을 전후하여 성남 본도심에서 사라진 문화유산의 실태에 대해 논의했고, 미래의 우리 성남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를 의논했다.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안창모 교수의 기조발표 <광주대단지 주민생활공간과 도시형성>에 이어 최만순 연구위원이 <성남 대단지의 형성과정과 이주정책에 대한 연구>, 건축문화연구소 건축도감 정춘환 대표가 <광주대단지 도시·건축역사 기록 방법>, 성남학연구소 윤종준 상임위원이 <성남 본도심에서 사라진 문화유산> 발표를 한 후 성남학연구소 조남두 소장과 동서울대학교 성기용 교수, 가천대학교 최명숙 교수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김대진 원장은 이번 학술회의에서 "광주대단지 주민들의 열악했던 생활공간과 도시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남시 승격의 뿌리가 된 1971년 8월 10일의 광주대단지 사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광주대단지 사업으로 사라진 문화유산의 실태를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성남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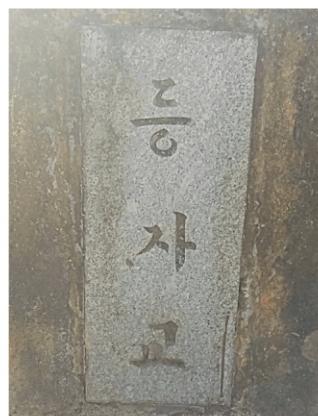


ABN아름방송과 『문화도시 성남』 방송 진행

성남문화원과 ABN아름방송은 우리 고장의 문화명소를 찾아가는 특별프로그램인 '문화도시성남'을 공동기획하여 10월 19일 성남동을 시작으로 신흥동, 분당동, 중앙동, 수내동, 수진동, 금광동 등의 역사와 문화명소를 소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1개동씩 우리 시 50개 동을 모두 순회할 예정으로 2021년 새해에도 계속된다.

성남문화원은 ABN과 2017년 3월 20일부터 2018년 4월 14일까지 모두 56회에 걸쳐 성남시 관내 50개 동의 성남의 지명유래를 소개하는 '성남지명산책'을 방송한 바 있다.



경자년 (庚子年)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2020 새 해, 천제봉행 및 전통문화 한마당』

경자(2020)년 첫날인 1월 1일(수) 오전 6시 30분 판교 마당바위에서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2020 새해, 천제봉행 및 전통문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천제봉행'은 오전 6시 30분부터 판교 마당바위 정상에서 새해 첫 일출과 함께 희망찬 경자년을 맞아 100만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는 '천제봉행' 이 해맞이 행사 전에 진행됐다.

이어 2부 '전통문화 한마당행사'는 풍물패의 식전공연으로 악귀와 잡신을 물리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지신밟기'로 시작했다. 이어 성남시립국악단의 타악 퍼포먼스 '동방의 아침', 이주희 연극배우의 신년 '축시' 낭송, 경자년 '기원무', '신년 메시지 낭독', '시민 대북 타고', '동아리 공연' 등이 마련되고, 유명현 서예가와 성남캘리그라피 회원들의 '소원 글쓰기', '신년 휘호와 좋은 글 써주기', 김옥자 외 단군성조연합회 회원들의 '신년 운세 봐주기'와 전통 민속놀이 행사와 덕담을 나누는 화합의 자리가 마련됐다.



성남시 평생교육과 – 2020 평생학습기관 특성화프로그램 『내 삶을 디자인하는 행복』

성남문화원이 주최하고 성남시가 후원하는 2020년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내 삶을 디자인하는 행복'은 9월 7일부터 13회 수행하여 코로나19에 지친 일상에 대한 위로와 인문적 접근으로 자신만의 응원의 문장을 창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본 프로그램은 최명숙(가천대 외래교수) 강사가 비대면 온라인(Zoom)으로 진행 했고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배울용 외 9인의 코로나19에 지친 일상에 대한 응원의 문장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전시로 마무리 됐다.



경기문화재단 3·1운동 100주년 기념 문화콘텐츠 활용 민간공모 지원 사업 『경기지역 독립운동사 아카데미 Ⅱ』

3·1운동 100주년 기념 문화콘텐츠 활용 민간공모 지원사업

**경기지역 독립운동사
아카데미 Ⅱ**

주최·주관 성남문화원 후원

성남문화원이 수행하고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문화콘텐츠 활용 민간공모 지원 사업 '경기지역 독립운동사 아카데미 Ⅱ'이 강의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우리 독립 운동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교재를 출판하여 성남시 관내 학교, 주민센터 및 기관에 배포하였다.

경기지역 독립운동사 아카데미 Ⅱ 자료집에는 박민영 연구원의 '구국의 성전 – 의병전쟁', 김상기 교수의 '경기지역 독립운동사의 흐름', 전보삼관장의 '만해 한용운의 독립운동', 조성운 교수의 '경기지역 신간회 운동의 전개', 서승갑 교수의 '신간회 광주지회 독립운동', 심옥주 소장의 '경기지역 여성들의 독립운동' 등의 내용이 교재에 수록됐다.

경기복지재단 – 2020 경기도 어르신 즐김터 사업 『문화와 함께 살다 – 함께꼬는 지승공예, 함께쓰는 캘리』

성남문화원이 주관하는 경기복지재단 2020 경기도 어르신 즐김터 지원사업 '문화와 함께 살다 – 함께꼬는 지승공예, 함께쓰는 캘리' 성과 전시회가 12. 7(월) 오후2시, 성남문화원 1층 로비에서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홍연화 강사와 유명현 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전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형식의 Zoom과 네이버 밴드로 17회 수행한 지승공예 프로그램의 원복덕 외 10인과 캘리그라피 프로그램의 경규남 외 20인의 결과물로, 종이를 엮어 만들거나 종이에 자신의 글씨체를 표현한 결과물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받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비대면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어르신 즐김터 사업을 진행해 왔다.



경기도 문화의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인문학으로 빛나는 경기』, 『경기로 예술로 전통공예』

성남문화원은 2020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으로, '인문학으로 빛나는 경기', '경기로 예술로 전통공예' 온라인 강좌를 열었다.

10월 12일~12월 14일, 매주 월요일(총10회) 각 분야 인문학 전문가들을 초청해 '인문학으로 빛나는 경기'를, 10월 13일~12월 30일, 매주 화요일(총12회) 성남시 공예명장 제1호인 홍연화 명장의 전통공예 특강을 비대면 Zoom 강의로 진행했다.

김대진 원장은 개강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강좌는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온라인 비대면 강의 진행으로, 배움에는 끊김이 없어야하며 지속적인 지식습득과 새로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화원은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개강 인사말을 전했다.



경기문화재단 – 2020 생활문화 공동체 네트워크 사업 『문화로 기억하는 신흥』

성남문화원이 주관하고 경기문화재단 주최 및 경기도가 후원하는 2020 생활문화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문화로 기억하는 신흥' 전시가 12월 24일 2시부터 31일까지 1주간 문화원 2층 로비와 외부 쪽측 담벼락에서 개최됐으며, 이날 전시에는 유명현 외 16인 활동의 결과물이 전시됐다.

본 사업은 성남시 과거 모습과 현재의 신흥동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글과 캘리그라피로 표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네이버 밴드와 Zoom 등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본 사업은 재개발 될 신흥동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집과 마을지도 등을 제작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 2020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사업 『네묶음』

성남문화원이 수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및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2020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네 묶음』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어르신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제작하여 11월 26일부터 성남문화원 유튜브에 송출됐다.

2020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네 묶음』은 성남시 생활문화 어르신 동아리의 활동무대 마련을 목표로 '금빛 춤 사랑 – 부채춤', '타악연희단 소리울 – 삼도사물놀이', '성악어울림 벨칸토 – 파이팅 코리아', '은빛국악예술단 – 창극 사랑방', '아코디언 사랑 – 울어라 열풍아 외', '해당화 우리소리 – 방아타령', '뜻모아 경기민요 – 청춘가' 등 7개 어르신 공연이 수행 됐고 어르신 문화향유를 통한 사회적 삶의 질 향상과 어르신의 활동기록을 공유함으로 세대 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했다.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5호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비대면 온라인 공연 개최

성남시향토문화재 제15호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공연을 10월 30일(금) 오후 3시에, 하대원동 둔촌 이집 선생 사당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무관객 공연으로 영상 촬영 후, 유튜브로 송출했다.

지난해 제22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는, 시민사회에 영상으로 이무술 공연의 전 과정인 동아줄 꼬는 소리, 성토(가래질 소리), 지경다지기(초지경 양산도타령, 중지경), 방아타령, 휘모리, 서도 소리, 뒷풀이 순으로 공연을 펼쳤다.

이무술은 과거 광주군 돌마면 이매리로 현재 분당구 이매동을 일컫는 마을 이름으로, 자손을 분가시키거나 이사를 가서 새로 집을 짓거나 증축 할 때에 집터를 다지고 고르며, 지반을 튼튼하게 다지는 과정에 부르는 노동요다. 성남문화원은 집터 다지는 소리 경험자인 원주민 고(故) 김영한 옹과 마을 주민, 방영기(보존회장 ·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 산타령 전수교육 조교), 고(故) 최종민 교수(국악인) 등 전문가들의 고증을 바탕으로 1982년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를 복원 · 재현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성남지역의 대표적인 향토 민속놀이인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5호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는 2019년 9월 20일 '제22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에 선정되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활동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제작하여 7월 9일부터 성남문화원 유튜브에 송출됐다.

방영기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보존회장은 성남의 향토민속놀이인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를 전승 · 보존시키기 위해 36년간 노력해왔고, 지난 2017년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5호 지정까지 성남문화원과 최선을 다해왔다.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6호 『오리뜰 농악』 비대면 온라인 공연 개최

성남문화원이 주최하고, 성남시와 성남오리뜰 농악보존회가 후원하는 향토민속놀이 '오리뜰 농악' 공연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하대원동 둔촌사당에서 비대면 무관객으로 촬영하여, 12월 1일 성남문화원 유튜브로 송출했다.

이날 식전공연에는 오리뜰 농악보존회가 '비나리', 오리뜰농악 김민주 단원의 '선반 설장구', 소리꾼 이경진의 남도민요 '홍보가 中 화초장(고수 조한규) 을 선보였다. 이어 개회식 후, 오방돌기부터 풍년놀이까지 '오리뜰농악' 전 과정이 펼쳐지는 공연과 시민안녕을 기원하는 굿거리 한판도 펼쳐졌다.

'오리뜰'은 광주군 낙생면 구미리의 평야 이름으로 '오리뜰 농악'은 194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분당구 구미동의 옛 지명인 오리뜰에서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농번기와 농한기를 가리지 않고 전성기를 누리다. 1989년 분당 신도시 개발로 한때 자취를 감추었다.

성남문화원과 성남농악보존협의회의 노력으로, 2007년 문화관광부 선정 전통예술복원사업으로 지정받아, 제5회 전국풍물 경연대회의 종합대상 수상 및 제13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최우수상 수상을 비롯해 각종 대회에서 수차례 상을 수상하며 성남시의 대표 행사들에 출연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17일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6호 지정됐다.



『제13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성남문화원, '성남오리뜰농악'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 28개 시·군이 참가한 '제13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에 성남지역의 대표 향토민속놀이인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6호 '성남오리뜰농악'이 참가해 10월 23일(금) 최우수상(경기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올해 청소년민속예술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상으로 경연심사를 했고, 성남대표팀은 성남금용고등학교(이근호 교장) 고운매팀 30여명이, 약 3개월간 동안 오리뜰농악보존회(서상능 전수조교 등)의 집중적인 지도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연습을 다해, 심사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대진 원장, 은수미 시장에게 '웃음꽃' 족자 선물(11.16)



신경천 성남시 행정조정실장 방문

지난 7.1일자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 취임한 신경천 실장이 27일 성남문화원에 인사차 방문하여 김대진 원장과 환담하였다.

신 실장은,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장, 중원구청장을 역임한바 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 방문

지난 7월 1일자 제27대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 취임한 김기영 구청장이 취임 첫날 성남 문화융성의 중심인 성남문화원에 신임 인사차 방문하여 김대진 원장과 환담하였다.

김 청장은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재직 시에 성남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손성립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장 방문

지난 7. 1일자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영전한 손성립 국장이 성남문화원을 방문하여 김대진 원장과 환담 하였다.

이 자리에는 조지영 신임 문화예술과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범희 성남교육장 방문

지난 3.1일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하여, '학생이 행복한 성남교육'을 만들어 가는 이범희 성남교육장과 윤봉춘 경영지원국장이, 7월 17일 성남 문화융성의 중심, 성남의 정신적인 지주인 성남문화원을 방문하여 김대진 원장과 차담회를 하였다.

성남문화원과 성남교육지원청 양 기관은 2016년 1월 21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성남시 문화·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바 있다.



성남 중원구 윤영찬 국회의원 방문

윤영찬 국회의원이 성남 문화융성의 중심, 성남의 정신적인 지주인 성남문화원에 7.15일 방문하여, 김대진 성남문화원장과 문화원 임원인 방영기 성남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보존회 이사장, 이경식 단군성조연합회장과 차담회를 하였다.



제8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의장단 방문

성남시의회 제8대 후반기 윤창근 의장과 의장단은, 7월 24일(금) 성남 문화용성 시대의 중심인 성남문화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윤 의장을 비롯해 조정식 부의장, 박영애 의회운영위원장, 강상태 행정교육체육위원장,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 최현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광순 윤리특별위원장 등이 방문하였다.

윤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정목표가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이다. 시민의 마음을 얻기가 매우 힘들지만, 시의회는 경청하는 의회 · 정책중심 의회 · 일하는 의회 · 공정한 의회 ·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 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며, 성남문화 발전에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고,

성남시의회 3선 의원과 시의장을 역임했던 김대진 원장은, 신임 의장단의 방문에 감사하며, 시의회가 성남문화 발전에 많은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방문

10월 29일 제23회 강정일당상 시상식 참석자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정희 시의원, 원복덕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주희 성남연극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문화원을 방문하여 김대진 원장과 함께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2020 지방문화원의 날〉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문화체육장관표창' 홍연화 성남시 공예명장 '한문연 회장상' 수상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2020 문화원의 날' 기념식이 10월 2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문화원의 날'은, 230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문화원의 성과를 알리고, 문화원 간 상호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이다.

김대진 성남문화원장은 '문화체육장관표창' 수상, 홍연화 성남시 공예명장은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인 '인재분야 창의 활동가'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0년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유공〉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2020년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생태계가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에도 신규사업 발굴 및 온라인 비대면 사업 전환 등 극복을 위해 힘쓰고 道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김대진 성남문화원장이 '문화예술진흥 유공' 경기도지사표창'을 받았다.

특히 김대진 원장은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비대면 행사, 강좌 등 문화예술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미래의 문화예술도 이러한 방법이 주가 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성남문화원, 2020 유공 문화가족 시상〉 경기도지사 표창 방영기 회장, 김희중 사원 성남시장 표창 이경식 회장, 심기환 사원 한국문화원연합회장 표창 조남두 성남학연구소장 수상

매년 송년의밤 행사와 함께 진행하던 '유공 문화가족 시상식'을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취소하고, 12월 22일 김대진 원장이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원장실에서 전수했다.

성남문화원은,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문화 환경 속에서도, 기존 사업 외 6개 외부 공모지원사업(8개 프로그램)에 선정,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비대면 온라인 행사 등으로 개최해 왔다.

성남문화원은 개원 후 42년 동안 '대한민국 문화원상' 3년 연속 수상, '경기도 문화예술 기관단체 최우수상 수상' 등 전국 230개 문화원 중 우수 문화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제28회 성남시 문화상〉 최만순 성남학연구소 연구위원 '학술부문' 문화상 수상

최만순 성남문화원(부설) 성남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제28회 성남시 문화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10월 8일 제47주년 성남시민의 날에서 시상을 받았다. 최만순 연구위원은 성남에서 태어나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시 공학 전문가로, 경원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과를 졸업(석. 박사)하였다.

성남문화원 역대 부원장을 역임하며,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시 재개발, 도시구조변천, 역사문화 환경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역사적 특성과 도시 재생에 대하여 학술적 연구를 수행한 업적이 지대하다.

특히 〈성남문화연구〉 논문집에 '성남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연구', '성남시 지명유래의 유형분석 및 지명유래에 대한 주민인지특성 연구' 등의 논문 발표와 '성남학이카데미' 강사 등 성남문화원 특설강좌 강사로 활동한 바 있다.



〈남한산성 문화권협의회〉 최만식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업무협의

성남·광주·하남문화원 협의체인 '남한산성문화권협의회'(회장 김대진 성남문화원장)는, 8월 12일 남한산성 남한장에서,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대진 회장, 이창희 광주문화원장, 유병기 하남문화원장, 윤종준 성남문화원 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3개 문화원 사무국장들이 함께해서, 남한산성과 관련한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남한산성문화권협의회는, 지난 2006년 4월 25일 창립된 이후, '순국선열 추모제', '산성논지' 발간 등의 문화사업을 개최해오다, 현재는 예산관계로 '순국선열추모제' 만 3개 문화원 순회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산성논지' 5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남한산성만의 특화된 정책발굴을 위한〉 성남·광주·하남문화원,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간담회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는,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으로, 11월 26일 성남·광주·하남문화원 협의체인 '남한산성문화권협의회'(회장 김대진 성남문화원장)와 소통의 자리를 통해 3개 시·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남한산성만의 특화된 정책을 발굴, 21년 센터 업무계획 수립·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자 간담회를 열었다.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박경원 소장,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대진 회장, 이창희 광주문화원장, 유병기 하남문화원장, 3개 문화원 사무국장, 센터 운영지원팀장, 세계유산활용팀장, 세계유산보존팀장들이 함께해서, 남한산성과 관련한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성남시 탄생 배경 재조명〉 성남의 역사인 광주대단지사건 전시회 열려..

김대진 성남문화원장은 8월 12일 수요일, 김정진 사무국장, 윤종준 성남문화원 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함께 성남시의 탄생 배경인 광주대단지사건 전시회를 돌아봤다.

수정구 태평동 빙집 2110번지를 활용한 '움직이는 땅: 광주대단지사건'와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열린 '이돈순: 분리된 도시의 삶—광주대단지사건으로부터' 전시는 다양한 예술가를 통하여 '8·10 광주대단지사건'을 형상화한 전시였다.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주민 5만여명이 정부의 주먹구구식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하여 생존권을 요구 하며 일으킨 시위사건인 '8·10 광주대단지사건'은 1973년 7월 1일 광주군에서 분리되어 시로 승격을 계기가 된 사건으로 올해 49주년이 되었다.

김대진 원장은 전시를 둘러보며 "성남시는 1973년 7월 1일 광주군에서 분리되어 시로 승격되었는데, 그 계기가 된 '광주대단지사건'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잘 갖추어진 우리나라 1기신도시 분당과 일산 등의 명품도시 건설계획이 추진될 수 있었다. 즉 광주대단지 사건은 한국 신도시 건설 역사에 분명한 이정표 역할을 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성남문화원』 YouTube 채널 개설

성남의 문화 융성과 전통문화 발굴·전승 및 지역문화 창달에 노력하는 문화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2020년 6월 12일에 YouTube(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성남문화원 유튜브는 성남문화원이 수행하는 '학술회의', '새해 천제봉행', '성남3·1 만세운동 기념탑 참배', '둔촌 문화제', '경기도 어르신 즐김터 성과영상' 등 60여개 사업에 대한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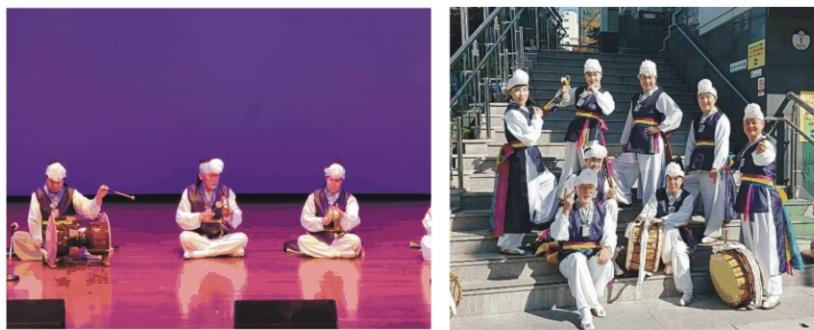


성남문화원, '타악연희단 소리울' 〈제6회 경기실버국악제〉 최우수상 수상

성남문화원의 풍물동아리 '타악연희단 소리울'(대표 이영표)이 한국국악협회 경기도지회가 주최하는, 제6회 경기실버 국악제 전국경연대회에서 '경기기락 웃다리 사물'로 참가하여 경기도지사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금년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동영상 심사로 이루어졌으며, 50여개팀 이상이 민요, 타악, 무용, 판소리, 기악 등 부문에서 경합을 펼쳤다.

'타악연희단 소리울'은 2019년 경기도복지재단 주최, 제4회 9988톡톡쇼에서도 대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성남문화원 행사를 비롯해 많은 공연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성남문화원, 성남문화의집 3년 재위탁 운영

2004년 12월 1일부터 성남문화원이 성남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성남문화의집은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3년 재위탁이 결정되었다.



성남3·1만세운동 기념탑 유지 관리

2017년 1월 1일부터 성남시로부터 위탁받아 유지 관리하고 있는 '성남3·1만세운동 기념탑'을 12월 24일 태극기 교체 및 전문 청소 업체와 함께 기념탑 이끼제거 등 전체 청소 및 관리를 실시했다.



성남문화원·문화의집 정문 등 간판 교체

2004년 위탁 당시부터 사용하던 정문 등 전체 간판을 교체하는 작업을 12월 20일에 실시했다. 오랜 기간 부식으로 인해 녹물과 인명사고의 위협을 주던 철판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었고, 문화원의 분위기도 밝게 바뀌었다.



성남문화원·문화의집 건물 내 전체 방역 실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수강생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매달 1회 이상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문화원의 모든 강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다.



정재영 선임 부원장, 『낙생농협 50년사』 발간

성남문화원 선임 부원장인 정재영 낙생농협 조합장은 '낙생농협 창립 50주년', 반세기의 역경과 성장의 역사를 담은 『낙생농협 50년사』를 9. 3일자로 발행했다.

정 조합장은 9월 4일 문화원을 방문하여, 낙생농협의 前 조합장이었던 김대진 원장에게 50년사를 직접 전달해 주었다.



박용준 감사, 감동의 무대 지휘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 22주년 비대면 연주회

민간단체의 재정 · 행정적 어려움, 코로나19의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창단 22주년을 맞은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감독 겸 상임지휘자 박용준)가, 비대면 무관객 공연을 촬영한 음악회가 성남아트센터에 열렸다.

10월 20일(화) 제67회 정기연주회 '2020 교과서 해설음악회', 11월 14일(토) 제68회 정기연주회 '2020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열린 가을음악회', 12월 5일(토) 제69회 정기연주회 '2020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는 유튜브채널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시청 가능하다.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는, 1998년에 민간단체로 창단하여 현재 초 · 중 · 고 · 대학생 9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3관 편성 악단으로,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성남시 음악문화를 선도하는 민간사절단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박용준 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척박한 한국 청소년교향악운동의 개척자로서 그간의 활동을 높이 평가되어, 지난해 8월 한국예술비평가협회(회장: 탁계석)로부터 오케스트라 발전에 대한 공로로 청소년오케스트라 대상(大賞)을 수상한 바 있다.



방영기 이사, 소리인생 50주년 기념 『우리소리를 찾아서』 온라인 공연 개최

(사)선소리산타령보존회 성남시지부가 주최하고 성남문화원, 성남국악협회가 후원하는 '해설과 함께 하는 2020 우리소리를 찾아서'는 성남지역에 국악의 초석을 다져준 방영기 명창의 소리인생 50주년 기념하는 무대로, 12월 15일(화) 오후 3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비대면 무관객 토크쇼 형식의 색다른 공연으로 촬영돼 23일 유튜브 <성남문화예술TV>로 송출된다.

유대용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의 해설과 사회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전수교육조교 '성남이 낳은 천상의 소리꾼' 아천 방영기 명창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전수교육조교인 이호연 명창, 박준영 배뱅이굿 전수교육조교, 춤자이예술단의 화관무등 다양한 무대로 우리 소리의 진수를 선보였다.



홍연화 감사 〈지승공예! 그 전통의 맥을 잇는 사람들 展〉

전남 구례군 소재 불교문화의 요람 천년고찰 화엄사 성보박물관 기획 초대전으로 〈지승공예! 그 전통의 맥을 잇는 사람들 展〉이,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화엄사 내 성보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홍연화 명장과 제자 7명의 함께하는 '경록지승보존연구회' 회원 지승공예 작품 '발우', '염주함', '천주함' 등 60여점이 전시됐다.

성남시 공예명장 제1호 홍연화 명장은, 2019 이탈리아 밀라노 트리엔날레 한국공예 법고창신전 초대작가, 2012년부터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한지공예 종종 십사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심사위원 등 활동과, 2019 지방문화원 어워드에서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2016 '성남시 공예명장 제1호' 지정, 2018 경기천년 장인, 2020 한국문화원연합회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성남문화원,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 등 많은 단체에서 봉사하며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제25기 성남문화학교』 운영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문화학교」는, 3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연기되어 8월부터 2학기(16주) 강의로 진행됐다.

금년 문화학교 강좌는 영어문화, 경서도민요, 한문서예, 문인화, 한국무용, 판소리, 한글서예, 풍물, 가야금 9개 강좌 16개 반으로 운영됐다.

성남문화학교는 지난 1996년 개교되어, 1999년 문화관광부 문화학교로 지정됐으며, 차별화된 전통 문화 강좌로 지난 25년간 총 4,572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성남시민을 위한 명실상부한 선도적 교육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김대진 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발열체크, 손 소독, 마스크착용 확인, 체온과 연락처를 남겨 만일의 상황에 철저한 대비를 하여 수강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고의 강사진으로 차별화된 문화 강좌를 운영하여 전통강좌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쉼터의 장이 되도록 계속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 성남학아카데미』 ‘내 고장 성남’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

성남문화원은 우리고장 성남의 역사와 문화, 전통, 사회, 인문, 교양 등을 주제로 하는 특색강좌 '2020 성남학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성남학아카데미'는 8월 19일 개강을 시작으로 오전10시 2층 5강의실에서 총 16주의 강좌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축적된 운영을 바탕으로 성남의 뿌리를 찾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김정란 교수의 '베르사유 미로와 동화', 정해득 교수의 '조선 왕릉 제도의 정비과정', 정원영 박사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국난극복 리더십', 김소희 연구실장의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다양한 가족', 조옥연 교수의 '우리 궁궐의 여성공간 이야기', 박현숙 연구원의 '설화를 통해 본 질병의 근원과 극복' 등의 다양한 강좌를 기획하고 운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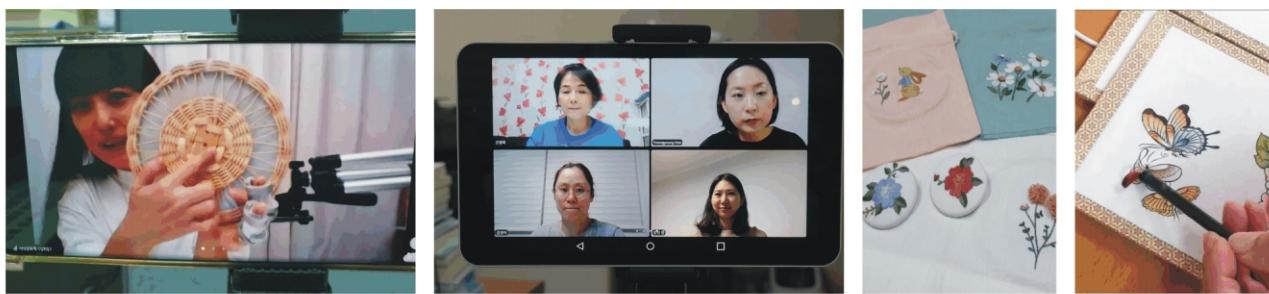


〈집콕 문화생활〉 온라인 기획강좌 진행

성남문화의집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외부활동 자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에 지친 성인들을 위하여 "집콕 문화생활"이라는 트랜드에 맞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소소한 취미생활을 만들어 주고자 '온라인 기획강좌 – 라탄, 프랑스 자수, 민화'를 진행하게 되었다.

성남문화의집에서도 처음으로 대면수업이 아닌 '줌(Zoom)'을 활용한 화상미팅 방식의 수업은 낯설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내 공간'에서 취미생활을 한다는 부분도 강사와 수강생 모두가 만족스러워한 부분이었다.

강좌는 10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스튜디오엠엠 김지은 대표의 '라탄공예-채반, 거울, 컵홀더, 조명갓'을 4회, 11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는 프랑스자수문화원 정다운 대표의 '프랑스자수-붉은 동백꽃브로치, 코스모스 키친크로스, 토끼 파우치, 입체 꽃'으로 4회, 12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전통민화전승연구회 노혜숙 대표의 '민화 – 모란도 두폭 가리개, 연화도 시계'로 2회, 총 10회를 진행하였다.



성남문화의집 4분기 프로그램 '온라인' 운영

코로나19로 인하여 점점 휴관에 돌입한 성남문화원과 성남문화의집은 속수무책으로 쉬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2020년 4분기 전 강좌를 '온라인'으로 운영 할 계획을 세웠고, '네이버 밴드'라는 남녀노소를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게 되었다.

강사도 수강생도 모두가 처음 해보는 온라인 수업이라 부족한 부분도 많고 장비도 변변치 못한 상황을 반영해 4분기(10~12월)동안 전체 강좌를 무료로 진행하였고, 영상을 촬영할 장소는 성남문화의집 강의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촬영이 어려운 선생님과 네이버 밴드 사용방법을 모르는 수강생들은 언제든지 성남문화원에 방문하면 방역수칙에 준수 하여 안내를 도와드렸다.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소통의 어려움과 장비의 취약함이 있었고, 수업 참여율은 대면수업에 비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 한번으로 끝나는 수업이 아닌 계속 반복하여 볼 수 있는 동영상 강의에 편리함과 소소하게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모두가 즐거워하고 만족스러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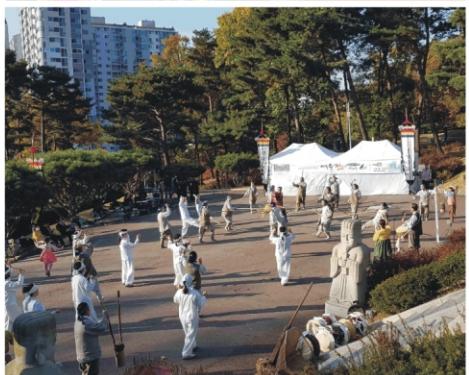


城南文化研究

제27호 · 2020



城南文化院
城南學研究所



참여의 문화, 나눔문화의 산실
성남문화원